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음 10월 19일) 제241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경북·경남 가야사 복원 '맞손'

오늘부터 3일간 '영·호남 가야 문화권 한마당'
가야문화권 대통합 퍼포먼스부터 공연·체험까지
송하진 도지사 "역사 중요한 축 바로서도록 노력"

가야문화권에 속한 전북·경북·경남 3개 도가 손을 맞잡고, 잊혀진 가야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의 장을 연다.

전북도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국립중앙박물관 일원에서 3개 도, 25개 시군이 함께하는 '영·호남 가야 문화권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경북·경남도·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정군수협의회가 주최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주관하며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가야문화권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영호남의 상생·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15일 행사 개막식에서는 전북을 비롯한 3개도 지사와 문화재청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관련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가야사의 성공적 복원과 가야문화권의 대통합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보인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일원에서는 3일간 가야문화 영상관, 대표적인 가야유물을 홀로그램으로 제작해 전시한 가야문화 유물관, 전북·경북·경남 3개 도의 통합 상

생홍보관과 25개 가야 문화권 시군 홍보관이 운영되며, 관소리, 거문고, 바이올린, 재즈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가야문화권 지역박물관 8개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1개소, 장수군 1개소 등의 체험 부스도 마련된다.

또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포럼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해 학계 및 지역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가야를 통한 영·호남의 공동발전을 논의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1차 포럼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및 영호남 화합'이라는 주제로 개막일인 15일, 2차 포럼은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주제로 다음달 1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오늘 영·호남 가야문화권 한마당 행사를 계기로 우수한 가야문화를 널리 알리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야가 우리 역사의 중요한 축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전북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장점마을 주민들께 사과, 재발방지 대책 약속"

정헌율 익산시장이 14일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을 받은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중국 출장 중인 정 시장은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발병과 비료공장 간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환경부의 최종 발표에 따라 주민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이어 앞서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 결

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랫동안 고생한 주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기존의 비료공장 부지를 매입해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친환경기법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수능시험 마치고 교정을 나서는 수험생들

14일 전주한일고등학교에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교정을 나서고 있다.

이번 수능 '국영수 작년보다 쉬웠다'

교사들, 출제방향 브리핑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불수능'으로 평가됐던 지난해보다는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수능 주요영역인 국어·수학·영어 시험이 끝난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역별 출제방향 브리핑에서 교사들은 지난해보다 시험 난이도가 쉬웠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불수능의 주범으로 꼽혔던 국어는 올해 시험 난이도에 관심이 집중됐던 과목이다.

수학의 경우 시간 쉬운 문항 위주로 구성되고 3~4개의 '킬러문항'이 변별을 갈랐으나 올해는 킬러문항 난이도는 낮아진 반면 중간난이도의 문항들이 다수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신유형 문항이 없었고 EBS 연계율이 높아 다른 두 과목처럼 지난해보다는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은성 기자

예술놀이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 예술교육 전주 국제포럼 개최

미래세대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예술교육도시로 나아가길 것을 선언한 전주시가 국내 지자체 최초로 예술놀이(교육)분야 국제포럼을 열었다.

전주시는 14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예술이 어떻게 도시를 움직이고, 어떻게 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주는 지에 대해 모색하는 '제1회 예술교육 전주 국제포럼 2019'를 개최하고 세계적인 예술교육 전문가들과 전주를 세계적인 예술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장조려, 상상력과 놀이, 미래 세대를 위한 예술교육'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먼저 김승수 시장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주제로 첫 번째 국제포럼의 포문을 여는 기조연설자로 나서 △도시가 나아가 할 방향 △도시를 바꾸는 힘, 예술놀이의 중요성 등에 대해 열린 강연을 펼쳤다.

이어 후주의 세계적인 예술교육 기관인 아트플레이의 창립자인 사이먼 스페인 올렛위아 대표가 '창의적 예술교육 활동을 위한 공간'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창의 활동을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 상상 및 특별 공간을 구성하는 맞춤



제1회 예술교육 전주 국제포럼 2019 JFOCA 2019

전주시는 14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제1회 예술교육 전주 국제포럼 2019'를 열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형 전시 관리 기반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게르하르트 예거 벨기에 ABC 어린이예술원 대표와 황순우 팔복예술공장 총감독, 단 헨릭스 핀란드 클로리케 티터른 연극극장 감독이 사례발표자로 나서 주목을 끌었다.

먼저 오랜 전쟁의 역사를 경험했고 국민 전체가 교육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벨기에의 ABC 어린이예술원은 20년 전 미술관이나 박물관과 파트너십을 이루는 형태로 예술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게르하르트 대표는 "처음부터 예술을 일상생활과 통합시킨다는 의미에서 예술이

교육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초점에 두고 예술가가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며 창의력과 호기심을 키워 왔다"고 소개했다.

연극 예술가이자 극장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단 헨릭스 감독은 핀란드의 교육 사례 발표를 통해 "예술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 예술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어린이들이 놀면서 공감력과 상상력을 증가시키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핀란드의 예술교육 사례를 발표해 청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황순우 팔복예술공장 총감독도 전시·창작·예술교육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 팔복예술공장의 탄생에서부터, 지역·학교·예술가들과 함께 예술놀이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온 그동안의 사례를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전주예술놀이도시 자문단을 맡고 있는 백영 경희대학교 문화예술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이대건 고창 책마을 해리 대표와 김혁진 인천 모든학교 체험학습연구소 위원, 이균형 전북CBS 보도제작부 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전주형 예술놀이와 예술교육 활동을 위한 공간, 어린이 예술놀이(교육)프로그램, 팔복예술공장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가 공부 잘하는 교육도시에서 예술로 아이를 키우는 예술놀이도시로 큰 전환을 이루려는 시점에서 이번 국제포럼은 외국과의 선진사례는 물론 예술놀이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전주가 보유한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을 토대로 팔복아호예술놀이터와 서화동 예술마을 등 전주전역에서 아이들의 예술 감수성을 키우고, 문화·예술이 놀이가 돼 전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